

전남쌀 '새청무' 인기 높는데 종자 부족

내년 종자 700t...전남농가 필요량 절반에도 못 미쳐 농업인 종자 나눠 파종하는 '자율교환'이 유일 대안

전남 대표 쌀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새청무'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농가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종자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내년엔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된 새청무 종자는 농협과 도기술원이 계약재배한 500t과 전남 7개 시군이 자체 증식한 200t 등 총 700t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새청무 종자 생산량은 내년 전남지역 종자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기술원이 예측한 것처럼 새청무 재배면적이 전남지역 전체 벼 재배지(15만4000ha)의 30%에 달한다고 가정

하면 3200여t의 종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상 농가는 1ha 당 70~80kg의 종자를 사용한다. 올해는 농협이 5475개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면서 전체 벼 재배지의 10%에 달하는 1만5000ha에서 새청무가 생산됐다.

2021년 '새청무' 생산 전망도 밝지는 않다. 내년엔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청무 종자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생산량 1000t과 농가가 자율적으로 교환해 생산한 1000t 등을 합쳐 2000t에서 많게는 3000t이다. 하지만 2021년 전남지역 새청무 예상 재배 면적이 전체 농경지의 절반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7000t의 종자가 필요하다.

종자 부족 상황에 대해 전남도기술원은 현재로서는 농가끼리 스스로 종자를 나눠

파종하는 '자율 교환' 형식의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농가의 자율적 해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종자 공급률 때문이다.

쌀 주산지인 전남 지역은 고품질 벼 종자 수요가 높으나 정선시설이 부족해 현재 종자 공급률이 43.5%에 머무르고 있다. 90%대인 다른 지역 공급률에 크게 못 미치고 전국 평균 58%도 밑돌고 있다.

대규모 종자 공급은 더지만 새청무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생산된 '새청무'를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는 지자체는 강진군 단 한 곳이었지만 내년 매입품종으로 결정할 지자체는 경남 거제와 광주를 포함한 11곳으로 늘어났다. 공공비축미 품종은 농민단체와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새청무'를 사들이겠다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청무와 새누리 품

종을 교배해 개발한 중단생종 '새청무'는 올해 세 차례 태풍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새청무는 지난 9월부터 '링링' '타파' '미탁' 등의 태풍을 거쳤음에도 벼 쓰러짐과 수발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발이 및 병해충에도 강하고 밥맛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10a(1000㎡) 당 생산량은 560kg으로 전북 '신동진' (596kg) 보다는 낮지만 경기 '추청' (453kg), 강원 '오대' (481kg) 보다 높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도기술원이 개발한 '새청무'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전남쌀 대표품종 생산자연협회와 협약을 맺고 12개 농가와 종자용 새청무를 계약재배했으며 내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정부에서 종자를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 등재를 1년 앞당겨 2021년부터는 안정적인 종자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육성 유통활동가 귀촌·창업청년 돕는다

140명 교육...현장 투입 오늘까지 7차 모집

올해 전남지역에서 육성된 140명의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들이 고령화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17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을 통해 올해 육성된 유통활동가는 전남 20개 시·군 140명에 달한다. 이들은 2년 동안 지역 농·수·축협과 로컬푸드 매장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직무교육과 워크숍, 간담회 등 총 60시간에 걸친 사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뒤 월 200만원의 임금과 교통·숙박비 30만원도 지원받는다.

담양 대전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영(33)씨는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해주는 유통업무가 적성에 맞지만 창업의 벽을 넘어선 것 힘들었다"며 "유통활동가 사업을 통해 대전농협에서 유통업무를 시작한 이후 NH로컬을 전국 1등으로 키우자는 꿈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영씨(왼쪽) 차경화씨(오른쪽)

영양 신북농협에서 택배 업무를 맡고 있는 차경화(39)씨는 "치열한 경쟁에 지쳐 무작정 영암으로 귀촌했으나 그동안의 경력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며 "영암 신북농협에서 일을 하게 돼 안정적 시스템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활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7차 모집을 18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자리추진단(061-339-6965)에 문의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애플망고 아카데미클럽' 기술재배 교육

공동 브랜드개발 등 논의

지난 2월 발족한 농협 전남지역본부 '전남 애플망고 아카데미클럽'이 영광 농장에서 기술재배를 위한 토론회를 펼쳤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4일 영광군 염산면 '망고야농장'에서 '전남 애플망고 아카데미클럽' 기술재배교육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애플망고 재배농가와 재배 희망자,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시군기술센터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아직 매뉴얼화 되지 않아 애플망고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토론회를 이어갔다. 또 우수한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브랜드개발과



전남농협 '전남 애플망고 아카데미클럽'이 지난 14일 영광 망고야농장을 방문해 기술재배교육 토론회를 가졌다. <전남농협 제공>

농가 조직화 등을 논의했다.

영광 망고야 농장은 1만여 평(3만3000㎡)의 시설하우스에서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망고 재배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7.9ha로 나타났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아열대작물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으로서 향후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품목별 아카데미클럽을 육성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날 행사를 계기로 아열대작

물 재배농가들이 정보공유를 통해서 기술 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재배교육 및 조직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 청년농 농산물 저소득층에 전달



홀몸노인·장애인 가구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 청년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해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새문화생태공원에서 열린 '지구농 장터' 행사에서 청년농부네트워크 50여 팀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해 광주지역 홀몸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농어촌공사와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청년농부네트워크가 함께 열렸다.

'지구농 구하는 농부'라는 뜻을 지닌

'지구농 장터'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50여 개 팀의 농산물이 선보여졌다.

공사는 이날 장터에서 청년농부 농산물을 구매해 광주지역 공공임대주택 3곳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전달했다.

김인식 공사 사장은 "청년농부들이 농업으로 성취하고, 농촌에서 머물며,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청년 농부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농축협, 돼지고기 소비촉진 직거래 장터 열어

돼지고기 가격 회복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위축된 돼지고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농축협이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시, 광주축협, 광주비어농협, 평동농협 등과 지난 15일 광산구 수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및 안전성 홍보'를 위한 시식회 및 직거래 행사'를 가졌다.

(사)나눔축산운동본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구이용 돼지고기가 시중가보다 25% 저렴하게 판매됐다.

행사에 참가한 농협들은 직거래장터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코너를 운영하며 돼지고기 안전성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17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농협 나누축산물공판장에서 15일 거래된 돼지고기 kg당 평균 가격은 3238원으로 일주일 전(2495원) 보다

29.7% 상승했다. 하지만 돼지열병이 국내에 발병한 두 달 전 가격(4721원)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김일수 광주본부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며 국내에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 캠페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곡농협 경제사업장 재개장

광주시 광산구 임곡농협 경제사업장이 개선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장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4일 임곡농협 경제사업장 신축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50년 넘게 운영된 이 사업장은 건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다 연면적 515㎡ 규모로 신축됐다. 이곳에서는 영농자재와 소농기구가 보관되고 농기계 수리작업이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